

# 맞 올린 '친노 신당'... 답답한 민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통합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친노(親盧)신당'이라는 암호가 수면 위로 올라와 민주당의 야권 대통합에 큰 장벽이 드리워진 것이다.

친노진영내 신당과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신당 창당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준비위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단체 성격이지만, 정치적으로선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직전 단계를 뜻한다.

신당과의 핵심인 전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몫이 있고 우리는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담아 열심히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최대한 많이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창당을 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등 연대

## '친노신당파' 창당준비위 구성 등 독자 세력화 박차

### 통합 동력 상실... 정동영·신진영 영입 등 대안론 탄력

는 가능하지만, 합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비위원장에 선출된 이병만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민주당과 같이 하려면 무엇보다 창당을 하겠느냐"고 했다. 친노그룹을 통합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본격적인 통합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당장, 친노그룹부터 먼저 아우르고 나머

지 장의 세력과 합치자는 당내 단계적 통합론이 힘을 잃게 됐다. 그 대신 무소속 정동영, 신진영 의원 등 당장 통합이 가능한 인사나 세력부터 받아들이자는 현실적 대안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야권통합을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로 당내 '통합과 혁신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상태지만 조직

구성은커녕 가시적 노력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통합혁신위 활동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당내에선 김 전 의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혁신 대상인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김 전 의장이 물밑에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최근(친노 인사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남 양산 출마를 위해 복당한 것처럼 이미 통합의 큰 흐름은 시작됐다"며 "통합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양 "여수·순천시와 통합 회동 불참"

광양시가 22일 예정됐던 3개시 통합관련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18일 국·소장 핵심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3시 통합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여수, 순천시에 공식 통보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통합에 대해 광양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영·호남 상생을 도모하고 지리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여수·순천·

광양·남해·하동 등)이 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광양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3시 통합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광양만권의 일부인 '3시(市) 통합논의'는 지역간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돼 현 단계에서는 통합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김정일 발언, 6자회담 복귀 신호"

### 캠벨 美 국무부 차관보

카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다자·양자 협력을 하겠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장차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우리가 요청해왔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배포한 캠벨 차관보의 기자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최근 몇개월의 중요한 상황 진전은 6자회담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북한이 2005년 합의사항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유지하려는 중국의 결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캠벨 차관보는 기자회견에 대한 자신의 답변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를 보지 않은 상태이며, 발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캠벨 차관보의 적극적인 해석과는 달리 워싱턴의 국무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결과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사후보고)을 받은 뒤에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중 건국 60주년 기념 설치물 중국 국경일(10월1일)을 맞아 20일 베이징에 건국 60주년 기념 축하 설치물이 등장한 가운데 한 경비원이 설치물 뒤에서 있다. 중국 정부는 국경일에 천안문 광장 등에서 열병식, 불꽃놀이 등 축하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이낙연 '해파리 피해 구제 법안' 제출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 국회 농업수산물위원회)은 20일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어구 파손,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방제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공부하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알려진 전 청장은 조선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영어중문과,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포함시키고, 해파리 피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적조 현상 및 해파리 대량 발생 시 방제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정보센터의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파리 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천29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8~9월 동안에는 약 763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정보센터의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파리 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천29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8~9월 동안에는 약 763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정보센터의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파리 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천29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8~9월 동안에는 약 763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정보센터의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피해 예방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파리 가 보통 어업에 영향을 끼치는 6개월간 약 2천29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8~9월 동안에는 약 763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해파리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규정하지 않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강진원 "강진군수 출마" 명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진군수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강진원(50·사진) 전남도청 국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국장은 황주홍 현 군수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10년이나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 국장은 "뜻을 세웠으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명퇴를 신청했다"며 내년 강진군수 도전을 분명히 했다.

강진 작전 출신인 김 국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장흥부군수, 전남도 법무담당관·정책기획관·혁신도시담당·기업도시기획담당·F1대회지원보좌관 등을 지냈다.

### 전갑길 광산구청장 미 대학서 名博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 미국 컴벌랜드대학교로부터 명예 행정학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

전 청장의 학위 수여식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렸으며, 광주를 방문한 이 대학 체스터 마틴 총장이 직접 명예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마틴 총장은 "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행정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과 광산구청장으로서 행정 혁신과 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룬 점이 인정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

### 정현복 "광양시장 출마" 민주당 입당

○광양시장에 뜻을 두고 있는 정현복(60·사진) 전 광양부시장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



지난 6월 명예퇴직 한 정 전 부시장은 지지자 3천여 명과 함께 지난 18일 민주당 유은근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정 전 부시장은 "40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일익을 담당하겠다"면서 "당원으로써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광양 출신인 정 전 부시장은 1969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공보관, 신안부군수 등을 지냈다.

/박지경·박정목기자 jkpark@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대호온돌나라**

충심대는 지금이 구입적기입니다.

	1,200,000		1,000,000
	1,500,000		1,000,000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대호온돌나라 ☎ 062) 360-1902

**인디안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실복합 타장 주월동 빅마트 옆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 654-7205